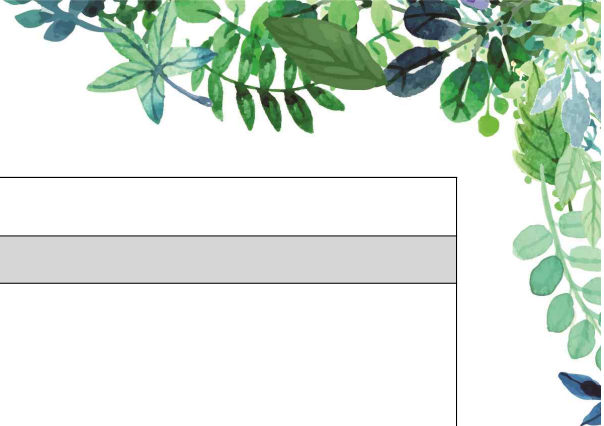


# ABS BRIEF

나고야의정서 국내외 동향





기 간	2017년 8월 1일 ~ 31일
-----	-------------------

**요 약**

**● 국내동향**

**【신문기사 및 기타】**

- 미래 생물자원 전문가 키운다...여름방학 교육과정 개설 ('17.8.1)
- 국립종자원, 올해 상반기 380품종 신품종 출원 ('17.8.1)
- 나고야의정서, 백신·병원체 산업도 발목 잡나 ('17.8.3)
- 中 생물유전자원 관련 법제 강화...국내 업체 추가부담 발생 예상 ('17.8.5)
- 유전자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나고야의정서 이행 ('17.8.8)
- 한국도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전 세계 98번째 ('17.8.8)
- 우리 생물 찾기 가속화...자생생물 발굴 성과보고회 개최 ('17.8.9)
- 나고야의정서 18일 발효, 천연물의약품 제약업체 '타격' ('17.8.9)
- [기획] 나고야의정서 발효 종자업체 온도차 ('17.8.11)
- 나고야의정서 오는 17일 발효...화장품·제약업계 '부담' 확대 ('17.8.13)
- 17일 한국에서도 '나고야의정서' 발효...“연구 현장에도 타격 예상” ('17.8.16)
- 농식품부, '나고야 의정서' 발효 대응책 마련 나서 ('17.8.16)
- 한국바이오협회-화장품업계, 나고야 의정서 공동 대응 ('17.8.18)
- 산림청, '나고야의정서' 대응팀 구성...산림유전자원 보존·이용 대응 ('17.8.22)
- 800 여종 화장품원료 중 생물자원 유래 소재는 15% 수준 ('17.8.23)
- 바이오협회,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설팅 실시 ('17.8.23)
- [이사람] 장영호 생명연 ABS 연구지원센터장 “ABS 체제는 명백한 위기...헬프 데스크 역할 커져” ('17.8.27)
- “멸종위기인 구상나무를 살리자~”...경남도-산림과학원 증식연구 협력 강화 ('17.8.28)
- 경북도, 화장품시장 아시아 허브 도약 4대전략 발표 ('17.8.28)
- [연구자 나고야의정서 가이드②] 기초연구와 상업화 연구, 똑같이 적용될까 ('17.8.28)



## ● 국외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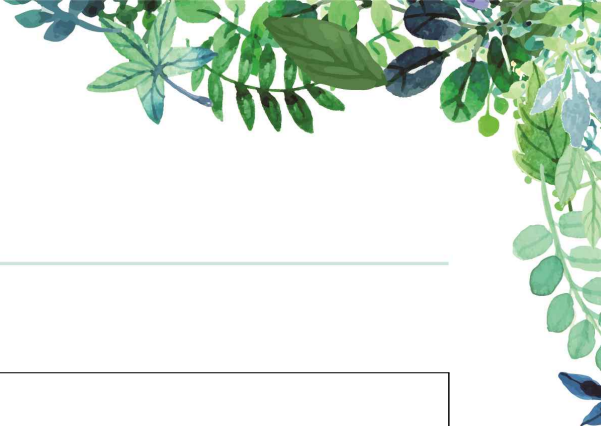
- 현재까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00개국(99개국+EU)

지역	비준 국가	합계
아시아	요르단, 인도, 라오스, 시리아, 몽골, 타지키스탄, 인도네시아, 부탄, 미얀마,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카타르, 한국, 일본, 쿠웨이트	21
오세아니아	피지,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바누아투, 마셜제도	5
유럽	서부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스위스, 영국, 독일, 핀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12
	기타 알바니아, 헝가리,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체코, 불가리아, 몰도바, 룩셈부르크, EU	11
중남미	파나마, 멕시코, 온두라스, 가이아나, 과테말라, 페루, 우루과이, 도미니카, 쿠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안티가바부다	12
아프리카	가봉, 르완다, 세이셸, 모리셔스, 남아공, 에티오피아, 보츠와나, 코모로스,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부르키나파소, 베닌, 케냐, 나미비아, 우간다, 니제르, 부룬디, 마다가스카르, 감비아, 모잠비크, 수단, 말라위, 기니, 레소토,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지부티, 토고, 세네갈, 잠비아, 말리,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카메룬, 상투메프린시페, 앙골라	39

- 당사국(Parties, 현재 100개)

### 【 신문기사 및 기타 】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 “유엔토착민인권선언” 10주년 기념 (‘17.8.8)
- 윤리적 생물 무역연합(UEBT), 2017년‘생물공정무역 콘퍼런스’를 개최함 (‘17.8.13)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소개 (‘17.8.16)
- 나미비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와 전통지식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 (‘17.8.20)
- 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바이오 브릿지 원탁회의“ 개최 (‘17.8.21)
- 미국, “ITPGRFA 비준에도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이익공유 대상의 모호성 계속” 주장 (‘17.8.27)



## 국내 동향

### 주요 동향 정보

#### 【신문기사 및 기타】

##### □ 미래 생물자원 전문가 키운다…여름방학 교육과정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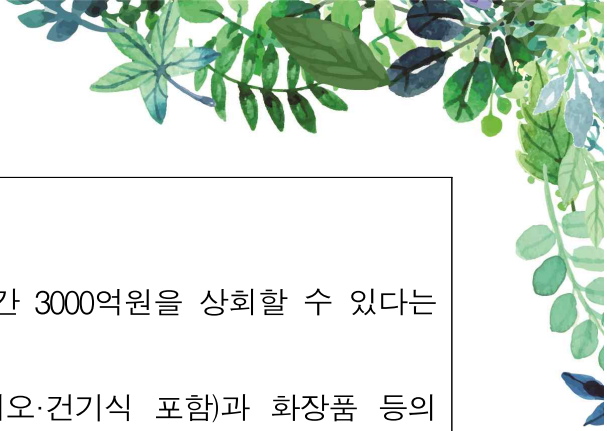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미래 생물자원(생물다양성) 전문가 양성을 위한 4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힘.
- 개설 과정은 어린이 대상 '어린이 생물자원교실', 청소년 대상 2개의 '청소년 생물자원교실', 교직원 대상 '생물다양성 및 생물분류 교원연수'이며,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운영.
-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자원과 생물다양성의 가치 확대와 보전을 위해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정책브리핑 (‘17.8.1)

##### □ 국립종자원, 올해 상반기 380품종 신품종 출원

-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1일 국내 품종보호 동향조사 결과, 국내 식물 신품종 보호 출원은 9593품종, 보호권 등록은 6931품종에 이른다고 발표.
- 국립종자원은 이 같은 수치는 신품종 출원 등록업무를 시작한 지난 5년 이래 출원 기준으로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회원국 74개국 중 7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식물 품종보호출원 상위 10개국은 유럽연합, 중국, 미국, 우크라이나, 일본, 네덜란드, 한국, 러시아연방, 호주·브라질(공동9위), 캐나다 순이라고 알림.
- 오병석 종자원장은 “지난 27일 나고야의정서 설명회를 개최해 우리나라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지위가 다음달 17일부터 정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의 유전자원이 국제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게 됐다”며, “지속적인 종자산업의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육종소재로 사용되는 해외 생물 유전자원 이용 시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
- 국립종자원은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권리가 인정됨에 따라 신품종 육성 시 활용한 유전자원 출처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등을 정비해 품종보호제도 운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헤럴드경제 (‘1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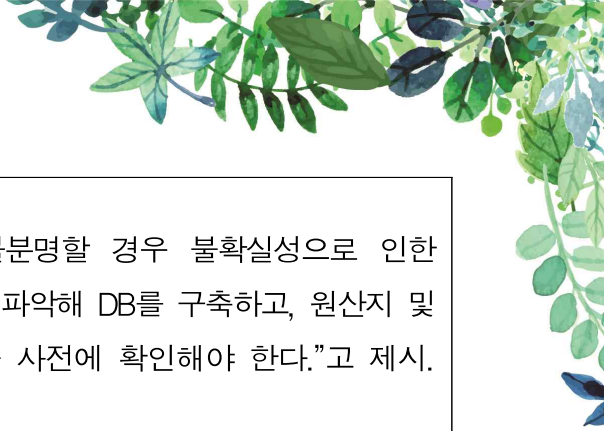


□ **나고야의정서, 백신·병원체 산업도 발목 잡나**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병원체자원 수입원가가 연간 3000억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관련업계는 동식물유전자원 수입에 따른 의약품(바이오·건기식 포함)과 화장품 등의 자원제공국 로열티 지급에 따른 원가상승 외형을 각각 7000억·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나고야의정서 제8조제b항에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병원체 자원에 대해 각 자원제공국들이 재산권 주장 시 국내 백신, 진단키트산업도 타격이 예상. (인체유래자원은 제외)
  - 병원체와 직결되는 백신시장은 필수접종 감염병 지정과 접종 대상자 확대, 접종률 상승, 신종 감염병 백신개발 등 외형증가 추세지만, 자체개발 현황을 보면 재조합 B형간염 백신, 수두백신, 일본뇌염백신, 파상풍백신, 한타백신 등 10종 미만에 불과.
    - A백신제조사 관계자는 “과거 국내 백신산업의 낮은 자급률과 개발능력은 다국적 제약사의 제조 문제에 따른 공급지연,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처능력 저하와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병원체는 국내백신 자체개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원료다.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자원제공국의 병원체 로열티 요구가 현실화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형국이다”라고 밝힘.
- ※ 데일리팜 (‘17.8.3)

□ **中 생물유전자원 관련 법제 강화…국내 업체 추가부담 발생 예상**

- 한국무역협회가 160개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유전자원 조달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이 4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생물자원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음.
  - 중국의 ABS 관리 조례(안)은 나고야 의정서를 넘어선 조치들도 일부 포함하여, 생물자원 이용 시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해야 하고, 생물자원 보유인과의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이익 발생금의 최대 10%를 추가 납부해야 함.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5~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둬.
  - ABS 관리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무료로 활용 가능했던 동·식물 등의 생물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해야 함으로써 로열티 상승, 자원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등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연구위원은 “중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익공유에 따른 비용 증가폭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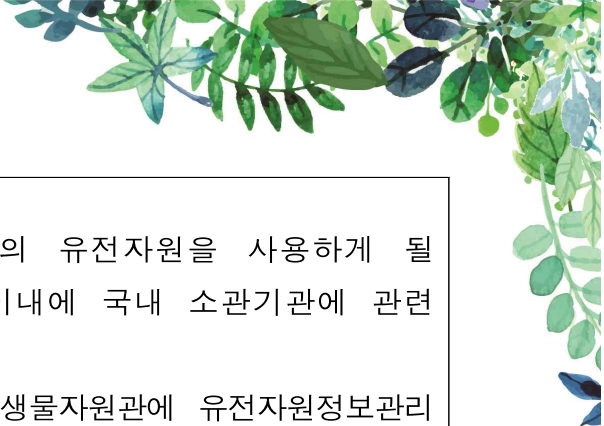
- 또한, “사용 중인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유래가 불분명할 경우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우선 이용 중인 생물유전자원을 파악해 DB를 구축하고, 원산지 및 나고야 의정서 상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
- ※ 산업일보 (‘17.8.5)

**□ 유전자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나고야의정서 이행**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8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정안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의 세부내용과 절차,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 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유전자원법에서 위임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는 대상 유전자원의 명칭, 접근 목적 및 용도 등을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외국인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경우에는 기업, 연구자가 유전자원의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90일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토록 함.
  -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 기업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1년 간 유예되어 내년 8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가능.
- ※ 정책브리핑 (‘17.8.8)

**□ 한국도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전 세계 98번째**

-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유전자원의 국제적 이용에 대한 협약인 ‘나고야의정서’가 오는 17일부터 국내에서도 발효.
-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유전자원법에서 위임한 국내 유전자원을 사용하려는 외국인과 기업 등은 유전자원의 명칭과 접근 목적 및 용도 등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이 경우 유전자원의 종류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지는데, 야생생물은 환경부, 병원체는 보건복지부, 수생생물은 해양수산부 등이 관련 절차를 맡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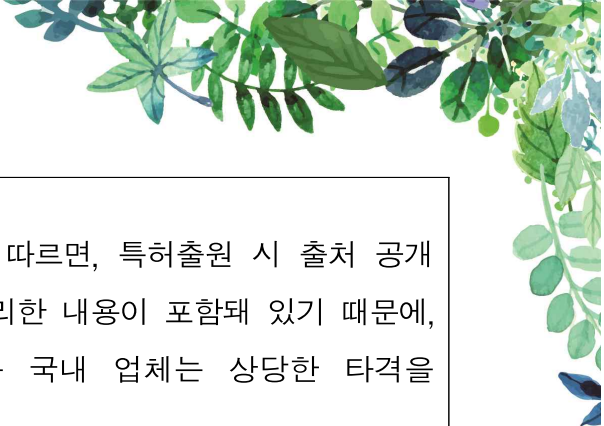
- 반대로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 연구자가 해외의 유전자원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90일 이내에 국내 소관기관에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함.
-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 센터를 설치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계획.
- ※ KBS 뉴스 (‘17.8.8)

**□ 우리 생물 찾기 가속화...자생생물 발굴 성과보고회 개최**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 11년간의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인 '한반도 자생생물 연구의 현황과 미래전략'을 8월 9일 명지대 용인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힘
- 본 보고회는 동물분류학회, 생태학회, 유전학회, 통합생물학회, 생물교육학회 등 5개 생물학 관련 학회 모임인 한국생물과학협회의 학술대회와 공동으로 열리고, 무척추동물, 곤충, 식물, 균류, 조류(藻類), 원핵생물 등 6개 분류군의 그간 발굴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
- 분류학자가 적거나 없는 미개척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접합균류를 비롯해 조류(藻類), 지의류, 곤충류, 연갑류, 다모류, 태형동물류, 편형동물류 등 국내 미개척 8개 생물 분류군 분야를 대상으로 14개 대학 소속 총 30명의 석·박사 전문 인력을 지원해왔음.
- 2016년에 울릉도에서 발견한 신종 곰팡이 '휴미콜라 코리아나(Humicola koreana)'는 살충제 또는 항균제 등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의 생성 가능성이 높은 분류군으로 친환경 농업 등에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우리나라가 8월 17일부터 전 세계에서 98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는 만큼 그동안 연구가 미흡했던 미개척 분류군과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 등에 집중하여 새로운 자생생물을 발견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힘.
- ※ 정책브리핑 (‘17.8.9)

**□ 나고야의정서 18일 발효, 천연물의약품 제약업체 '타격'**

-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금전적·비금전적 이익 포함)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각 국가의 전통지식을 이용해 특정 외국 기업이 신약을 개발했을 경우 그 이익을 그 지역민과 공유해야 함



- 중국의 '생물 유전자원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에 따르면, 특허출원 시 출처 공개 의무, 이익을 0.5~10% 추가 기금 납부 등 자국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천연물의약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천연물을 원료로 한 의약품은 녹십자 '신바로', 동아에스티 '스티렌'과 '모티리톤', SK케미칼 '조인스정', 안국약품의 '시네츄라', 구주제약의 '아피톡신', 한국피엠지 제약의 '레일라', 영진약품의 '유토마외' 등으로 파악되고 있음.
- 국내 천연물의약품 개발 제약회사들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중국 등과의 로열티 추가 지급 등 구체적인 협상은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신 업체들은 해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로열티 지급 요구에 대비한 대체물질 마련, 원료수입선 다변화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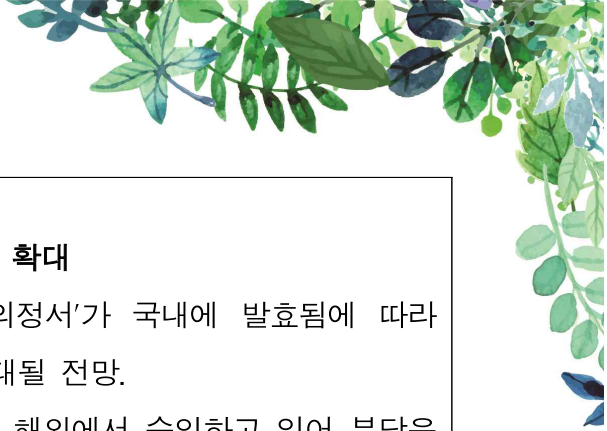
※ 약업신문 ('17.8.9)

#### □ [기획] 나고야의정서 발효 종자업체 온도차

- 나고야의정서가 오는 17일 발효되는 가운데 해외를 주 무대로 생각하고 있는 국내 종자 대기업들은 원산지 및 출처 관련 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한 대응방안을 찾고 있으나, 국내에 집중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체는 나고야의정서를 모르거나 대응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 중소 종자업체들은 대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 사이에 우수 종자 육성으로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생각 뿐 나고야의정서가 사업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
- 반면 종자 대기업들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새로운 수출 장벽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 대응방안을 찾고 있음.
- 종자업계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종묘 산업계 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며 “종자회사들의 유전자원 DB화가 이뤄져 있지 않아 자원국들의 공세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함.
- 농우바이오 관계자는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나고야의정서 채택(2010.10), 나고야의정서 발효(2017.8.17) 등의 시차에 따른 적용 범위와 함께 육종 기술 발달로 유전자원 공유국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유전자원의 가치 평가가 모호하다”고 설명함.

※ 농수축산신문 ('17.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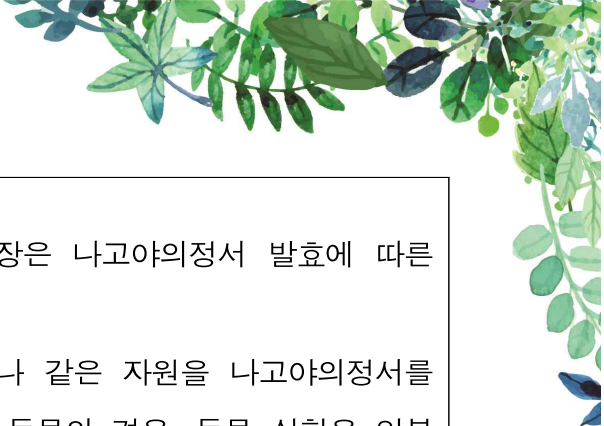


#### □ 나고야의정서 오는 17일 발효...화장품·제약업계 '부담' 확대

- 오는 17일부터 생물자원 공정무역을 위한 '나고야 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됨에 따라 생물자원 수입이 많은 화장품과 제약업계의 부담이 확대될 전망.
    - 국내 화장품·제약 기업이 사용하는 원료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대한화장품협회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해외 유전자원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은 유럽이며 그 다음이 중국.
    - 중국은 최근 외국 기업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례를 예고.
- ※ SBS 뉴스 ('17.8.13)

#### □ 17일 한국에서도 '나고야의정서' 발효...“연구 현장에도 타격 예상”

- 국내 연구자들 대부분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제도적으로도 아직은 미흡한 상황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국내 연구 현장에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 의정서 발효 이후부터는 다른 비준국의 유전자원(유전정보 포함)이나 전통지식을 이용하려는 국내 연구자는 반드시 사전에 국가연락기관(외교부·환경부)과 국가책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을 통해 이용 목적, 기간, 이익공유 방안 등을 명시해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등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 의무는 국내 자원을 이용하는 해외 연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연구에 활용하는 실험용 동·식물은 물론 화장품이나 의약품에 쓰이는 동·식물의 추출물과 발효균, 세균 같은 미생물 등 생명공학 연구에 쓰이는 생물자원 대부분이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임. 최근에는 대부분의 비준국들이 유전자원에 실물이 없는, 데이터 분석 결과인 유전정보까지 포함시키는 추세이며, 다만 인간의 유전자원이나 남극 지역 등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얻는 유전자원은 포함되지 않음.
  - 국내 생명공학 분야 연구자 대부분이 해외에서 자원을 수입해 오고 있다는 점이 문제. 생명연이 국가의 연구용 생물자원 인프라로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경우, 전체 개체수의 70.7%가 해외 자원이며, 종을 기준으로 하면 이 비율은 84.4%까지 치솟음. 특히 영장류의 발달이나 뇌 연구에 쓰이는 원숭이의 경우, 100%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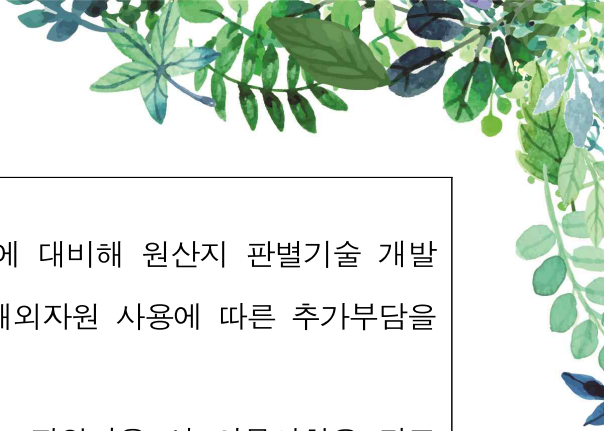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의 장영호 센터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
  - 첫째, 같은 성분이나 효과를 가진 다른 자원을 찾거나 같은 자원을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는, 다른 국가에서 들어오는 방법. 실험용 동물의 경우, 동물 실험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인공세포체)’나 ‘렁온어칩(lung-on-a-chip)’ 같은 생체칩을 활용.
  - 둘째, 연구자 개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생물연구자원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육성함. 생물자원센터, 국가영장류센터, 해외생물소재센터 등 생명연 바이오인프라 총괄본부 산하의 6개 센터와 국립생물자원관 등 국공립 생물자원은행(BRC) 50여 곳이 있지만, 대부분은 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곳은 부족.
  - 셋째, 국가의 연구용 생물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행정적 자문, 국제 분쟁에 대한 대응 지원 서비스 제공. 생명연 ABS연구지원센터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되어 최근에는 국제통상법 전문가들도 확보했지만, 여전히 국내에는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임.
  - 넷째, 생물자원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한국 고유의 자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고, 분석 등 계통분류학 분야 연구개발(R&D)을 지원.
- 신은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연구위원은 “나고야의정서는 상업이 아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원 활용에 대해서도 이익공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그동안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나고야의정서 관련 문제가) 논의돼 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구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동아사이언스 (‘17.8.16)

#### □ 농식품부, ‘나고야 의정서’ 발효 대응책 마련 나서

- 농림축산식품부는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발효에 대응해 농업분야 이행체계구축, 자원주권 주장근거 마련, 관련 기업들의 인식제고 등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농식품부는 이에 앞으로 1년의 의무이행 유예기간 중 별도의 대응팀을 구성해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개정과 해외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식 제고활동,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할 계획.
-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국내자원 이용을 위한 사전신고,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 절차 및 비율, 벌칙조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농업생명자원법의 개정을 추진.



- 해외에서 국내 야생종 또는 재래종 등을 이용할 경우에 대비해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등 자원주권 주장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업계 등에서 해외자원 사용에 따른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산 소재 연구개발도 강화.

- 아울러 국내 이해 관계자 및 민간업계 등을 대상으로 자원이용 시 의무사항을 담고 있는 나고야의정서의 내용에 대한 워크샵, 세미나 등 인식제고 활동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FAO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쟁점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 밝힘.

※ 한국농업신문 (‘17.8.16)

#### □ 한국바이오협회-화장품업계, 나고야 의정서 공동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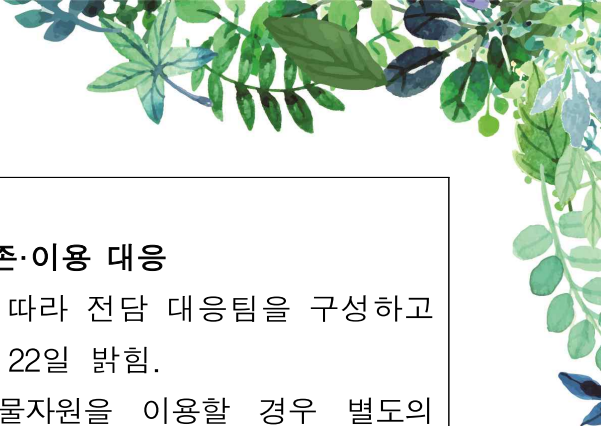
- 국내 바이오 업계 및 화장품 업계 대표 단체 한국바이오협회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같이 손잡고 화장품 업계의 나고야 의정서 인식 제고를 위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코스맥스 후원으로 31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나고야의정서 공동 대응에 나섬

- (주)또르르 윤길영 대표가 “나고야의정서와 화장품 산업의 관계”를, 특허청 김정아 사무관이 “나고야의정서와 특허와의 관계”를, 법무법인 바른 정경호 변호사가 “가상의 사례를 통해 본 해외 생물 유전자원의 위법한 취득 시 자원 제공국이 취할 수 있는 한국법상 조치와 쟁점”을 발표.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윤성혜 교수가 “국내 생물자원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생물자원 법제도 동향”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팀장이 “유럽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제 동향과 화장품 업계 시사점”을, 환경부 배정한 사무관이 “국내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업계 지원 방안”을 발표.

-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생산 실적은 2015년에 10조 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6년에는 13조 원에 달하는 등 국내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내 화장품 산업의 성장에 나고야 의정서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태스크포스 팀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특히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인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코메디닷컴 (‘17.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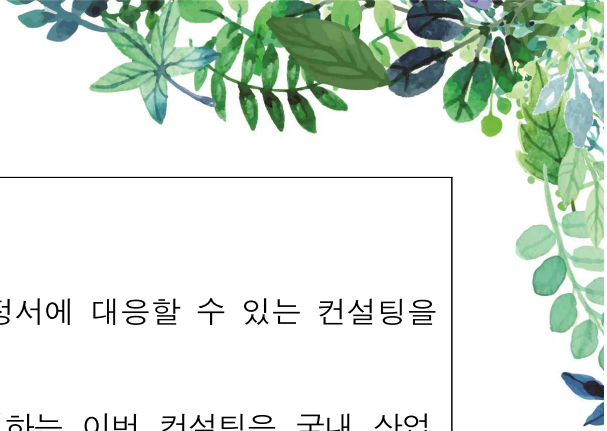


□ **산림청, ‘나고야의정서’ 대응팀 구성…산림유전자원 보존·이용 대응**

- 산림청은 최근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서 발효됨에 따라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 국내 화장품·식료품·생명산업계는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한 후 원료를 수입해야하는 까닭에 비용부담이 커지는 상황.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을 중심으로 10만여 종의 국내 생물 유전자원을 발굴 및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산림청은 본청 산림자원과를 주축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팀을 구성해 의정서와 관련된 국내 법령 정비, 정보제공 지원, 법률자문 서비스를 지원할 체비를 갖춤. 대응팀에는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이 참여.
  - 업계 편의를 위해 산림생명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 산림생명자원 데이터베이스(DB)를 정비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생명자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 추진을 병행.
- ※ 아시아경제 (‘17.8.22)

□ **800 여종 화장품원료 중 생물자원 유래 소재는 15% 수준**

- 국내 화장품 업계는 원료의 70% 가량을 수입하고, 국내 800여종의 화장품 원료 가운데 생물자원 유래(파생물 포함) 화장품 원료는 15%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대응이 주목 받고 있음.
  -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 나고야의정서 대응 CFT(Cross Functional Team)를 결성해 월 1회 국제적 법규 변화, 생물자원 특허 대응 관련 회의를 진행하며, 사용 중인 생물자원 유래 원료의 원산지·재배지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이익공유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생물 다양성 보전과 차별화된 식물 원료 소재를 개발하여 그 결과, 아모레퍼시픽은 ‘흰감국’에 대한 AP 독점 품종 보호권을 확보했고, 2013년부터 무궁화와 관련한 피부 효능 연구 및 제품 개발에 나서 2015년 10월 무궁화 원료를 함유한 마몽드 무궁화 보습 장벽 크림을 출시. 국내 토종 고유 콩과 캄보니아 흑란을 연구 중에 있음.
  - OEM·ODM 기업 유씨엘은 2013년 9월부터 제주도와 함께 제주산 원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창의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한 바 있다.
- 유세진 인터케어 해외사업부문 연구소장(전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부장)은 나고야 의정서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1) 학술적인 원산지 확인, (2) 실증 표본 확보, (3) 생물자원 채취 지역 확인, (4) 사용 중인 생물자원의 국가별 비교를 통한 대체, (5) 시장 가치에 따른 생물자원 사용 배제 (5) 생물자원 소유권이 있는 공동체나 국가 기관과의 협상을 제시.
- ※ 약업신문 (‘17.8.23)



□ **바이오협회, 나고야의정서대응 컨설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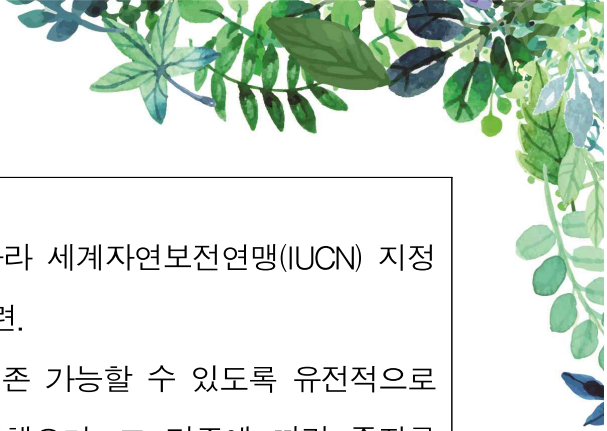
- 한국 바이오협회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할 수 있는 컨설팅을 실시하라고 밝힘.
-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산업과 연구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컨설팅은 국내 산업, 연구계의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 및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해 실시.
-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 산업정책유닛(031-628-0031)로 연락.
- ※ 의학신문 ('17.8.23)

□ **[이사람] 장영호 생명연 ABS 연구지원센터장 “ABS 체제는 명백한 위기... 헬프 데스크 역할 커져”**

- 장영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장은 최근 국내에 효력을 갖게 된 나고야의정서가 해외 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연구 활동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 피력. 이럴 때일수록 ABS 연구지원센터 역할이 클 것임.
- ABS연구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든 나고야의정서 관련 전담기구로, 국내 연구현장의 '헬프데스크' 역할을 수행. 우왕좌왕하는 각 연구현장에 자원 이용 정보를 제공,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별 법과 제도 정보를 연구현장에 제공, 유전자원 활용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도와주는 서비스 제공.
- 예를 들어, 중국산 당귀가 비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소에 다른 나라의 유사 자원을 추천하는 식의 필요 유전자원과 같거나 유사한 것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함께 수행.
- 지난 2011년부터 ABS 연구지원센터를 이끌고 있는 장 센터장은 “국가 전반이 힘을 합쳐 주요 유전자원의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종자 및 품종 개량에 나서야 한다”면서 “ABS 연구지원센터도 힘을 더해 국내 관련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포부를 밝힘.
- ※ 전자신문 ('17.8.27)

□ **“멸종위기인 구상나무를 살리자~”...경남도-산림과학원 증식연구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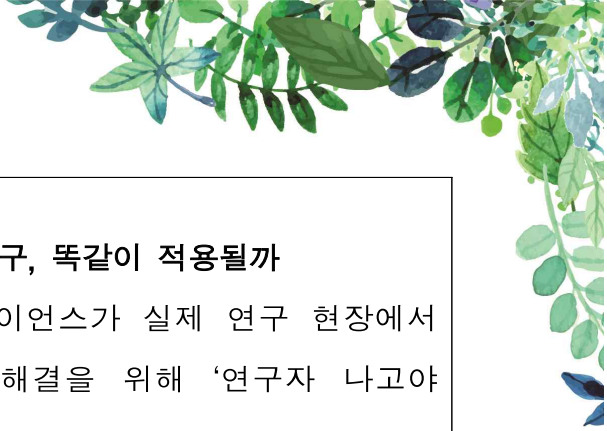
- 경상남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소장 오성윤)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구상나무 보존·복원재료 증식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힘.



- 이번 연구협력은 지난 17일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멸종위기종인 구상나무 보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
- 국립산림과학원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생존 가능할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다양한 복원재료 확보를 위한 종자 채취 기준을 마련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종자를 채취해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에 제공.
- 오성윤 경남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와 국립산림과학원은 유전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자수집, 묘목 증식과 자생지 환경적응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구상나무를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한 증식 기반을 계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힘.
- ※ 쿠키뉴스 (‘17.8.28)

**□ 경북도, 화장품시장 아시아 허브 도약 4대전략 발표**

- 경상북도는 31일 도청 회의실에서 우병윤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상북도 바이오 융합화장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 화장품 신물질 및 인공피부 융합연구원 설립은 우리나라가 올해 8월을 기점으로 생물자원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나고야의정서를 준수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화장품 원료의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화장품산업의 막대한 영업이익 손실이 불가피.
- 화장품산업의 수출 성장률은 지난 2012년 이후 44%대의 지속적인 고성장을 이어왔으며, 화장품산업이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화장품산업을 경북도의 주력산업으로 육성
- 본 보고회에서는 경북형 바이오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전략과제로 국제 화장품효능 임상검증센터 구축,, 화장품 신물질 및 인공피부 융합연구원 설립, 해양 기능성 융합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 거점 구축, 맞춤형 스마트 화장품 융합연구 지원센터 구축을 발표.
-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북의 화장품정책과 연계하여 화장품산업이 국내를 넘어 아시아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전략과제를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 ※ 중도일보 (‘17.8.28)



□ [연구자 나고야의정서 가이드②] 기초연구와 상업화 연구, 똑같이 적용될까

- 8월 17일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에 따라 동아사이언스가 실제 연구 현장에서 생물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연구자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연구자 나고야 의정서 가이드’를 연재.
  - 예시: “L 박사는 결핵의 발병 과정과 전파 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결핵 환자가 많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콩고공화국에서 현장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가축-사람 간 전염 원인, 결핵균의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물 사체에서 결핵균을 추출해 배양해야 함. 결핵균의 유전체를 해독해 항체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된 유전적 요인을 분석하고, 역학 조사를 통해 핵심 전파 경로를 밝힐 계획임.”
  - 아프가니스탄, 브라질 등과 함께 결핵 고위험국가 중 하나인 콩고공화국은 나고야 의정서 비준국이며 2015년 공식 발효. 콩고공화국에서 유전자원인 결핵균을 연구에 활용하려면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만약 이 연구로 이익을 창출한다면 콩고공화국과 공유해야 할 의무도 있음.
  - L 박사가 수행하려는 것은 감염병 대응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연구로서, 신약을 개발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화 목적의 응용 연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가 상업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기초 연구라는 점을 자원제공국에 설명할 수 있다면, 연구자는 좀 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유전자원 이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나고야 의정서가 규정하는 절차가 상업적 목적(정식 계약)과 비상업적 목적(간소화된 계약)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뉘기 때문임.
-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는 국가에서 배양한 결핵균주를 한국으로 가져와 분석하는 것은 필요한 인프라나 기술 등이 해당 국가에 없을 경우에만 허용. 그 결과에 대한 추가 연구는 다시 자원제공국에서 현지 연구진과 함께 수행해야 함. 이런 내용은 나고야 의정서 제23조(기술이전, 협력, 협동)에 명시되어 있어, 결핵에 관한 기초 연구라면 자원제공국의 결핵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임.
- 장영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장은 “국가마다 세부 이행 법률이 다르고, 건별로도 사전 허가를 받을 때 협의한 조건이 무엇이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해당 국가에서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의 선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 동아사이언스 (‘17.8.28)



## 국외 동향

### 주요 동향 정보

#### 【 신문기사 및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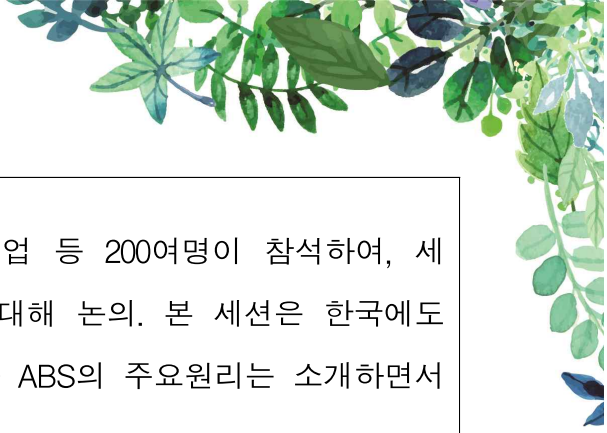
#####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 “유엔토착민인권선언” 10주년 기념

- 유엔토착민인권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이 올해로 10년을 맞이하였다는 사실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토착민들의 상당한 공헌이 있음을 반증한다고, CBD 사무국의 크리스티나 파스카 파머 사무총장은 그녀의 기념사를 통해 축하함.
- 토착민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전통지식은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포함하여 인류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일부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가능. 토착민들은 1992년 채택 이래 생물다양성협약의 충실한 파트너가 되었으며, 전략 계획인 20개의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들의 달성 및 2020 년 이후의 의제 개발을 위한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으므로 그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 강조.
- 토착민의 효과적인 참여는 여전히 진전을 평가하고 새로운 개선 된 조치를 개발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남아 있으며, 토착민이 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문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원주민은 협약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서 토착민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포함하여 협약에 따른 참여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 토착민들의 대표가 관련 회의를 열기를 원한다면 CBD 회의일정([www.cbd.int/meetings/](http://www.cbd.int/meetings/))을 참고하여, [www.cbd.int/traditional/fund.shtml](http://www.cbd.int/traditional/fund.shtml)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 한 회의 3 개월 전까지 [secretariat@cbd.int](mailto:secretariat@cbd.int)로 제출하기를 권고
- \* UN은 2007년 9월 13일 제 61차 총회에서 'UN토착민인권선언'을 채택했으며, 이 선언이 회원국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약 4억만 명의 토착민들로 하여금 부당한 차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데에 사용되어지고 있음.
- ※ CBD사무국 사무총장 기념사 ('17.8.8)

##### □ 윤리적 생물 무역연합(UEBT), 2017년 ‘생물공정무역 콘퍼런스’를 개최함

- 윤리적 생물 무역 연합(Union for Ethical BioTrade, 이하 UEBT)이 “Beauty of Sourcing with Respect”라는 주제로 지난 6월 1~2일간 개최했던 2017년 연례 콘퍼런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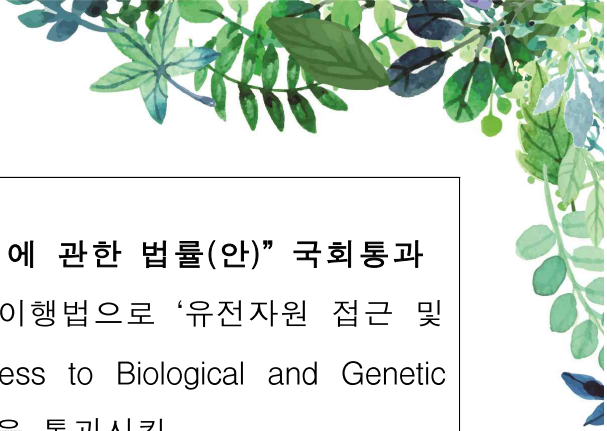




- 이번 콘퍼런스에는 CBD 관계자, 정부, 바이오 기업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세 번째 세션이었던 “생물공정무역과 ABS의 영향”에 대해 논의. 본 세션은 한국에도 여러 차례 방문했던 María Julia Oliva 코디네이터가 ABS의 주요원리는 소개하면서 시작함.
- Parceval사 의 남아공의 ABS 허가 절차 사례와 브라질 ABS 절차의 장단점 그리고, NGO 단체가 본 스테비아 사례, 끝으로 ‘루이보스와 ABS’ 등을 다루었음.
- 브라질, 프랑스,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파나마, 남아공 등 정부 대표 및 화장품, 식료품, 제약 등 바이오 기업 관계자 120여명이 모여 공개토론도 진행.
- ※ UEBT 보고서 (‘17.8.13)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소개**

-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생태계 기반 접근법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 사용 기회에 대하여 CBD 사무국이 소개함.
- GCF 준비 및 예비 지원 프로그램(the Readiness Programme)은 국가 역량 강화, 컨설팅 프로세스 이해, 직접 접근, 자금 조달, 민간 부문 동원 등을 위해 매년 1인당 100만달러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별 이행 계획 수립에 따라 국가당 최대 300만달러를 사용 할 수 있음.
- GCF프로젝트 준비 시설(PPF)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준비를 지원하며, 특히 국가별 직접 접근 엔티티 및 소기업 규모 범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표를 지원하며, 요청 건당 최대 150만달러까지 사용 가능.
- 상동의 두 가지 사안은 GCF기금과 CBF국가 지정 인증기관 또는 국가연락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고유한 국가적 맥락에서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CBF에 대한 중점사항을 GCF와 연계하도록 권장.
- 자세한 내용은 컨벤션 웹 사이트(<https://www.cbd.int/financial/gcf.shtml>)에서 확인 가능하며, CBD 사무국은 두 가지 과정 사이의 잠재적인 협력에 관한 모든 제안과 아이디어를 환영.
- \* 국가 지정 인증 또는 중점 사항 목록은 아래 주소에서 열람이 가능  
<http://www.greenclimate.fund/how-we-work/tools/country-directory>
- ※ CBD사무국 공문 2017-077 (‘17.8.16)



□ 나미비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와 전통지식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

- 나미비아 국회는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자국 내 이행법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와 전통지식에 관한 법률안(Bill on Access to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을 통과시킴.
- 본 법률(안)은 자국 ‘현지-내(in situ)’와 ‘현지-외(ex situ)’에 있는 생물유전자원 및 그에 대한 파생물, 관련 전통지식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의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를 규정하고 있음.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토착민과 지역공동체(IPLC) 소유의 지적 재산권(공동체 규범, 관행, 관행 법 등 성문법, 불문법 모두 포함)을 인정 및 보호하는 조항들이 명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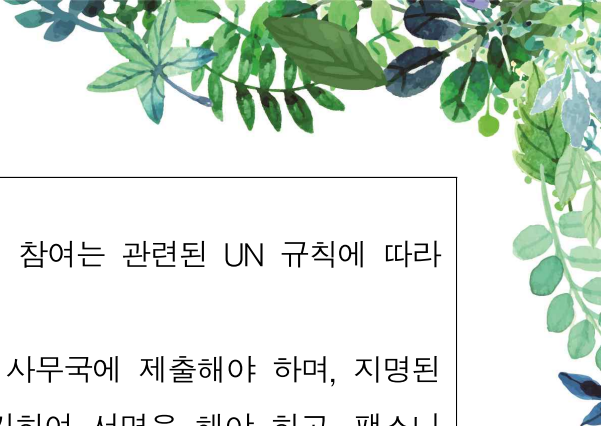
\* 해당 법률(안) 간략설명 및 전문열람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namibia-bill-on-access-to-biological-and-genetic-resources-and-associated-traditional-knowledge/>

※ Natural Justice (‘17.8.20)

□ 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바이오 브릿지 원탁회의“ 개최

- 오는 10월 16~19일 동안 인천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바이오 브릿지 원탁회의(Regional Bio-Bridge Roundtable for Asia Pacific)는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 주최로, 대한민국 정부가 후원함.
- 바이오 브릿지 이니셔티브(Bio-Bridge Initiative)는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 이번 회의의 목적은 바이오 브리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 지원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관점에서 그러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당사국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것임.
- 이번 회의를 통해 바이오 브리지 이니셔티브, 녹색 기후 기금, 기후 기술 센터, 네트워크, 표준 개발 목표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기술과 같은 관련 이니셔티브와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바이오 브리지 이니셔티브에 의해 촉진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될 것이라 기대.
- 회의 참석을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그리고 그 협약에 참여하는 기술 및 과학적 제후 분야와 기술 및 과학적 협력 분야에서, 한 국가 당 한명의 대표자를 지명하기를 요구.



-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해당 국가의 지명된 대표자들의 참여는 관련된 UN 규칙에 따라 선착순에 근거하여 지원함.
  - 공문에 첨부된 지명 양식서(국가 공식 승인서 포함)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지명된 후보자의 성명과 완전한 연락처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서명을 해야 하고, 팩스나 이메일([secretariat@cbd.int](mailto:secretariat@cbd.int))을 통해 해당 양식을 2017년 9월 8일(금)까지 보내야 함.
- ※ CBD사무국 공문 2017-079 ('17.8.21)

**□ 미국, “ITPGRFA 비준에도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이익공유 대상의 모호성 계속” 주장**

- 미국의 에밀리 말든(Emily Marden) 박사는 국제저널인 “Genetic Resources and Crop Evolution” 2017년 8월판 제64호를 통해 “미국의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ITPGRFA)’에 대한 비준이 (결국)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 이익공유의 대상의 모호성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U.S. ratification of Plant Treaty: benefit sharing ambiguity for plant genomics researchers does not change.)”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
- 2016년 9월 28일 미국 의회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비준을 결정하였고, 미국종자무역협회(ASTA)를 포함한 80여개 이상의 관련 단체와 기업들은 미국의 종자 주권이 보호될 것으로 전망하며,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크게 환영하였음.
- 말든 박사는 식물 유전체 데이터정보는 현재 식물 육종 및 글로벌 식량 안보에 있어 큰 잠재 이익이 있지만, 현재 ITPGRFA 다자체제 아래에 있는 유전자은행들로부터 획득한 식물의 데이터 정보를 이용할 때, 나고야의정서에서 명시한 이익공유의 대상인지에 대한 커다란 혼란이 존재함을 경고.
- 이러한 혼란 중 일부는 미국 농업연구소(미국 농무부 산하기관)의 국가식물 생식세포 시스템(NPGS: National Plant Germplasm System of the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이 본 국제조약(ITPGRFA 제15조제1항(d)호)의 다자체제 상, “유전자은행(Genebank)”이 아니기 때문임.
- 말든 박사는 끝으로 “미국의 비준 전과 후의 비교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식물 유전체학에 미치는 영향 및 이익공유 의무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하며, “미국 비준과 상관 없이 유전체정보를 둘러싼 이익공유 모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해당 논문 전문열람

<https://link.springer.com/content/pdf/10.1007%2Fs10722-017-0528-y.pdf>



**\*\*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원명: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목적: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이들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

채택: 2001년 11월 3일

현황: 당사국(체약국) 144개국 ('17.4.27 현재)

출처: [http://www.fao.org/fileadmin/user\\_upload/legal/docs/033s-e.pdf](http://www.fao.org/fileadmin/user_upload/legal/docs/033s-e.pdf)

대상: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

제1부속서의 다자시스템의 대상작물인 64종은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나고야의정서 제4조제4항 근거)

주의: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한 식물의 물질 중에 식량과 농업을 위한 가치를 보유한 유전자원은 ITPGRFA의 적용대상이 되어 다자체제의 규율을 받게 됨.

ITPGRFA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이 다자체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ITPGRFA조약 부속서 1에 수록된 특정 64작물 중

식량과 농업연구를 위한 것으로 국제농업연구센터에서 보존하고 있거나 공지공유영역과

국제기관 및 기타 자연인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만이 이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나고야의정서의 양자체제에 의한 접근 및 이익공유 방법에 따르게 됨

국내: 비준('09.1.20) 및 발효('09.4.10, 조약 제1944호)

원문과 한글번역본 열람: <http://www.aris.re.kr/ABS/app/absBoard/absRelateNatAgrmntList.do>

※ SPRINGER NATURE ('17.8.27)



ABS BRIEF 제64호

발행일 2017년 9월 1일  
발행인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발행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편집인 장영효 ABS연구지원센터 센터장  
안민호 ABS연구지원센터 연구원  
이수효 ABS연구지원센터 연구원  
강태호 ABS연구지원센터 연구원  
편집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  
(전화) 042-860-4626, 042-879-8332~4  
(FAX) 042-879-8339  
(홈페이지) www.abs.re.kr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BS BRIEF (Volume 64)

September 1, 2017  
Published by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  
Biotechnology (KRIBB)  
Edited in ABS Research Support Center, KRIBB  
Supported by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el: +82-42-860-4626, +82-42-879-8332~4  
FAX: +82-42-879-8339  
Homepage: www.abs.re.kr

[ 비 매 품 ]

'ABS BRIEF - 나고야의정서 국내외 동향'은  
ABS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www.abs.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기사 등의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